

전통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락 · 김세천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I. 연구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각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장만을 거듭해온 그동안의 발전과정을 답습이라도 하듯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도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객관적인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아 투여된 재화에 비해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각 도시마다의 어려움이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브랜드 도시, 전통문화 도시, 디자인 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도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살려내는 조건을 구현해내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을 불러올 수 있다. 도시는 저마다의 특색과 역사가 있다. 따라서 그 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 또한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많은 도시들이 지향하고 주창하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전통의 의미와 전통의 적용방법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전통에 대한 정체성 평가로 민족문화 상징조사를 통한 빈도 조사 및 수량화 3류조사¹⁾를 통해 전통에 대한 정체성 요인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0대 이상 성인 50명과 내국인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6월 13일~6월 27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98명이다.

2. 조사샘플 선정

민족문화 상징 100선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문화를 ‘한



그림 1. 민족문화 상징 100선 이미지

(韓)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민족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간적, 시간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문화유전자(DNA)를 선정하였다. 민족문화 상징 100선은 2005년 2월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국민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고려청자, 석굴암, 팔만대장경과 같이 대표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길거리 응원, 자장면, 정보통신(IT)과 같은 현대 문화, 또한 비무장지대, 평양, 백두산처럼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긴 상징까지 담고 있다.

특히, 문화상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서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나 지자체의 특산물 브랜드 사업 등과 연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에 대한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민족문화 상징 100선</p> <p>1. 전통/역사(전자계열 : 후자계열)</p> <p>생(유/무)(살아 있는 것 : 죽은 것)</p> <p>2. 국가의 유산사재(유사사재(有) : 유사사재(無))</p> <p>기대효과(기대효과(有) : 기대효과(無))</p> <p>활용방안(활용방안(有) : 활용방안(無))</p>	<p>1. 전통/역사(전자계열 : 후자계열)</p> <p>생(유/무)(살아 있는 것 : 죽은 것)</p> <p>2. 국가의 유산사재(유사사재(有) : 유사사재(無))</p> <p>기대효과(기대효과(有) : 기대효과(無))</p> <p>활용방안(활용방안(有) : 활용방안(無))</p>
---	--

그림 2. 민족문화 상징 100선 조사(속성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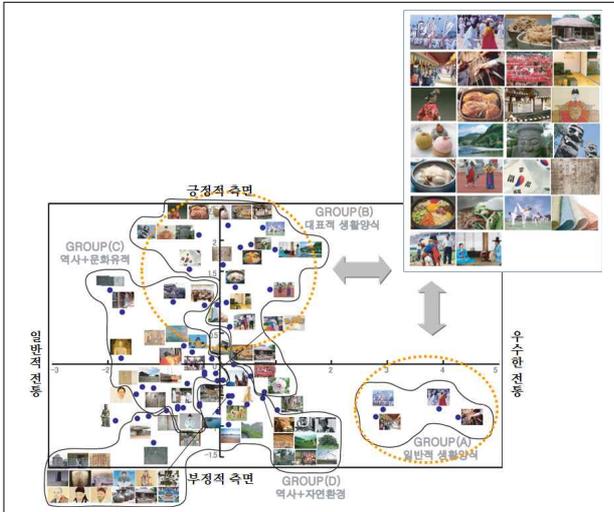


그림 7. 클러스터 조사에 의한 그룹별 결과 조사도

7. 민족문화 상징 결과 해석

민족 문화 상징 100선을 중심으로 앞에서 조사된 한국인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샘플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민족 문화 상징 100선 중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샘플(14개)과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샘플(14개)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우수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은 동일하다. 반대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우수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 중 불일치하는 샘플은 한국인(11개), 외국인(10개) 등으로 한국인(44.8%), 외국인(40.8%)가 불일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점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불일치하는 샘플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이 대표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들은 도자기, 불국사, 이순신 등 전자계열에 속하는 역사적 유물이 많았다. 외국인이 대표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샘플



그림 8. 한국인-외국인 결과 조사도



그림 9. 현재 적용되는 전통적 디자인이 범위



그림 10. 현재 적용되지 않는 전통적 디자인이 범위

플들은 전통놀이와 음악, 음식 등으로 과거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IV. 결론

조사된 한국인과 외국인의 한국적 전통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은 역사+문화유적을 외국인은 생활양식에 관련된 전통을 한국적인 전통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외국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통의 관심과 평가가 높은 것으로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현재 전통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적용된 한국적(전통적) 디자인의 사례들은 대부분 전통 문양과 조형의 적용에 있어서 한옥, 도자기, 부채 등 전자계열의 범주(변하지 않는 것, 죽은 것, 형식)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은 후자계열(새로운 것, 살아있는 것, 내용, 의식 등)과 관련된 전통의 접근방식으로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의 적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전통을 지역정체성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적용된 전자계열의 전통 이외에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통한 후자계열의 도입으로 전주시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

요약해보면 전통의 지역정체성은 지금까지 한국적 전통의 접근방식인 전자계열의 스타일 위주의 전통인 형태미(form aesthetic)와 앞으로 적용이 필요한 내용과 의식적인 후자계열의 내용미(content aesthetic)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을 통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형태미(form aesthetic)와 내용미(content aesthetic)를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주 1. 수량화 3류조사는 질적 데이터를 사용한 인자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체(샘플)의 다양한 속성수준의 반응패턴에 근거하여 개체와 속성수준의 쌍방을 수량화하여 유사한 개체와 속성수준을 도식화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주 2. 출처: www.minjok.mct.go.kr